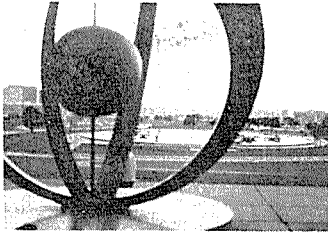


南美紀行 (3)

아르헨티나. 브라질. 구아테마라. 베네주엘라. 파나마 LA.



彫刻과 噴水

崔 昌 圭

LIMA空港을 5시30분에 뜬 AA(아르헨티나航空)機는 저녁노을이 아름다운 LIMA市 上空을 몇번 干廻하면서 南쪽으로 方向을 잡는다. 오-多情했던 PERU여 LIMA市여! 귀여운 PERU의 아가씨들이여! 그리고 建築家 HOSE氏와 SPINOSA氏여! 우리 一行은 当身들의 親切에 感謝하며 至今 LIMA上空을 날아가고있오. 当身네 나라에 對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들은 이제 当身들을 同族같은 親近感을 가지고 理解할것만 같소, 아디오스! 아디오스! 저녁 8時30分 Buenos Aires空港에 着陸해서 곧 市内로 向했는데 距離가 멀어서 1時間이나 걸렸다. 街路가 古木이 많았고 交通信號燈이 아주 正確하게 時間과 距離를 컴퓨터로 調整하게되어 停車함이 없이 交叉路를 通過하는것이 神奇하다. 거리는 그리 밝지 않아서 建物들은 잘보이지 않으나 아주 閑散해보인다. 몇곳을 다니면서 겨우 中心街의 호텔을 定했다. Buenos Aires 滞在 予定은 二泊三日이지만 夜間에 到着했으니 來日 하루밖에 求景할 時間 이없다. 中心街는 밤이 늦어도 북적거렸다. 우린 疲勞도 있고 거리로 나갔다. 商店들은 거의 門을 닫았으나 内部가 다 들여다 보인다. 飲食店이나 冊房, 酒店은 아직도 붐비고있다.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어디서인가 TANGO音樂이나 들리지않나 하고 기웃거렸다. 機内에서 저녁食事を 하고와서 茶만 마시고 모두 호텔로 돌아왔다. 소낙비가 갑자기 퍼붓고 11월인데 雷聲과 번개가 번쩍거려서 한여름인양 錯覺할 程度이다. 잠자리에 들어서 窓밖의 빛소리를 들으니 旅愁가 스며온다. 집을 떠난지 15일이 넘었는데 집生寃도 나고 여기까지 올때까지 지나온 各國의 風景이 눈앞에 아롱댄다.

Mexico에서 惶惚하던 피라밋의 夜景, Chichen Itza의 뜨거웠던 日光, ACAPULCO의 波濤소리, 離別宴에서의 서글프면서 즐거웠던 追憶들. LIMA의戀情, Machu-Picchu山頂에서 感傷, 인디오폴리리소리! Bogota의 뒷골목 거리等等 走馬燈같이 눈앞에 지나간다. 우린 이 짧은 時間에 많이도 다녀왔고 많이도 보고왔다. 時間마다 急變하는 人文과 言語와 飲食과 貨幣單位, 都市의 모습들!!

이러한 멋있는 80日間の 世界一周 映画보다도 越等히 훌륭한 映画이다. 이런 表現하기 어려운 心情은 旅行이 아니고는 맛볼수 없는 것이리라.

Argentina: 情熱의 나라, 탱고의 나라, 鬪牛의 나라, 蹴球의 나라, 우리는 地球正反對쪽에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나라에 와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기만하다. 飛行機로 40時間이나되는 이나라 首都中心部에서 빛소리를 들으며 누워있는 것이다. 꿀같이 달콤하고 키니네같이 쓰고 보리茶처럼 구수한 간지러운 感情때문에 나는 旅行을 하는것이 아닐까. 家族과 職場과 크고 작은 구속에서 解放된 自由人의 참모습이 이 瞬間의 우리들인 것이다. 옆 자리에서 成兄이 故國의 家族에게 便紙를 쓰고 있다. 初老가 넘은 半白의 머리를 쭈그리고 熱心이 무슨 事緣인지 쓰고있다. 나도 벌떡 일어나서 몇時間前에 離別한 S嬢에게 便紙를 쓰기 始作했다. 허나 나의 英語 實力으로서는 이 感情을 表現할수가 없어 單語 몇개를 成兄에게 물었더니 “허 좀前에 헤어지고도 못참아서그러우”하며 웃어댄다. “그러니 어찌란 말이요” “하기야 그女들이고 마웠지 ……”하 …… 成兄은 웃기만 한다. 잠도 안오고해서 옆房엘 가보았더니 張黃兄들도 같은 心境인지 MAKI에게 葉書를 쓰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니 두사람은 킁킁대며 “아, 들켰군” 한다. “괜찮어 나도 쓰고 왔으니깐”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雜談을하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비는 繼續 내리고 Buenos Aires의 밤은 깊어만 갔다.

11月 7日. 아침부터 서늘했다. 마이크로빠스를 貸切해서 市内로 나갔다. 곳곳을 돌며 案内嬢은 英語, SPAIN語, 포르투갈語를 連이어서 說明하나 英語를 알아들을수가 없다. 大使館街에 가서 “저것이 韓國大使館입니다”할때 太極旗를 보고 一際히 와-하고 喊聲을 올렸다. 옆에 있던 세사람의 Brazil人도 “오-KOREA”하며 웃는다. 저것이 “Brazil大使館입니다”할때 나는 “Viva Brazil”하고 소리쳤더니 그들은 손을 흔들어 고맙다고 한다. 大學街 갈릴레오天文館, 公園, 埠頭, 國防省, 海岸路, 政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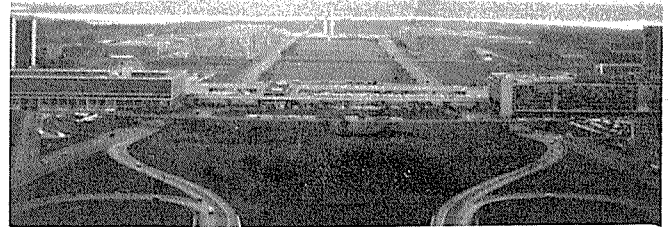
庁舎, 蹴球場, 等等 많은곳을 돌아다녔다. 特히 海邊에서 石油会社 옆에 어마어마하게 큰 油槽船이 많았는데, 案内嬢이 “오나시스”의 船舶들이라고 説明해주었다. 이 海邊에 西쪽으로 몇厘가면 조그만 港口가 있는데 그곳이 伊太利의 移民들이 定着한곳이고 音樂의素質이 있는 伊太利人들이 貧困의恨을 音樂에 실어 始作한것이 바로 有名한 탱고音樂이다. 탱고音樂에는 Spanish tango와 Argentine tango가 있다. 그 有名한 “라쿰파르시타”가 여기서 나왔고 그곡의 뒤에 숨은 事緣은 슬프다. 卽 가난한 作曲家가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바람나서 旣 男子와 달아나 버린後 갖난아기를 안고 뒷골목을 다니며 아기에게 젖을 求乞하는 哀淒로운 心情을 作曲한 것이라고 한다.

탱고는 얼핏 듣기에는 신나고 明朗한것 같지만 이 音樂에 必携 樂器인 바이올린과 아코디언은 가슴을 쥐어뜯는듯한 哀絶함이있다. 탱고춤을 추면서도 内心은 슬픈것이다. 우리 오늘밤엔 꼭 탱고쇼를 求景하자고 마음먹었다. 市内의 建物들은 最近의 國際主義建築과 Spain占領時의 中近世紀建物이 共存하고 있으면서 어색하지 않다. 獨立記念塔이 있는 100米幅의 大路며 무엇인가 大胆하게 해보려고 하는 氣色이 거리에서 엿보인다. 大統領官邸를 지날때 案内嬢에게 張兄이 “아헨데大統領과 그의 婦人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彼女가 對答하기前 나는 “監獄에있다”고 했더니 彼女は 빙그레 웃으며 “그렇다”고 했다. 다른손님들도 깔깔 웃어댔다. 댄서出身의 아내를가진 “아헨데”는 獨裁者였다. 獨裁者의 가는길은 監獄뿐인것이다. 午食을 요란한 집에 서했다. 숯불을 이글거리게 피워 놓은 옆에 쇠꽃이에 고기덩어리를 5-6個 끼어서 숯불 옆에 쭉 세워있고 食卓에 지글거리는 그고기 쇠꽃이를 들고와서 긴칼로 베어놓곤 한다. 또 숯불을담은 風爐 위에 소갈비, 羊갈비를 구어 올려놓은것을 갖다준다. 一行은 오랫동안 고기를 飽食했다. 고기種類도 소, 羊, 닭等 多樣하다. 原來 Argentina은 牧畜이 盛해서 肉類가 아주싸고 皮革製品이 名物이다. 古來로 名物이란 本고장에 가서 진짜를 보아야 하는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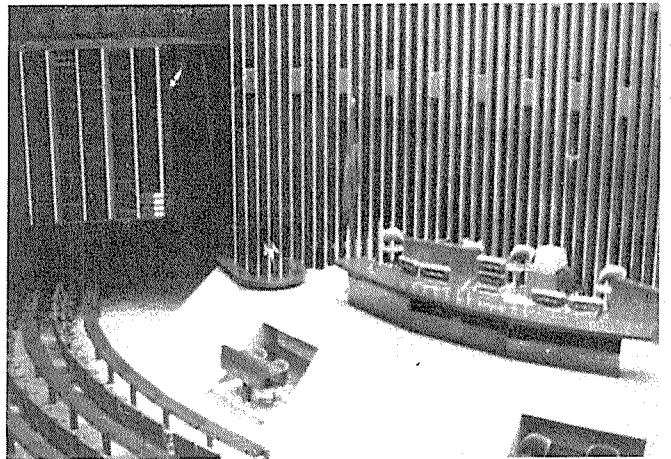
午後엔 우리 大使館에가서 人事를했다. 大使가 直接여러가지 Argentina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중에 가장 신나는것은 우리나라 移民이야기인데 Brazil에서는 失敗를 했으나 여기서는 成功했다는 것이다. 卽 여기서 相当히 떨어져 있는곳에 宏壯히 廣大한 荒蕪地를 이곳 政府에게서 拂下받아서 우리 農民20家口를 移民시켰는데 Argentina農林省과 約束이 三年間에 開拓해서 農土로 만든다는 約束이었는데 우리 農民들이 熱心히 해서 6個月만에 해치웠다는것을 報告했더니 그들은 놀라면서 그럴수가없다고 長官이 直接 大使와 같이 現地를 보고서는 氣絶을 할 程度로 놀랐고 또 기뻐서 直席에서 300世帶를 더 移民시켜도 좋다고 했다는 이야기다. 後에 歸國해서 新聞

을 보니 農場의 写真도 실려있고 300世帶가 移民한다는 消息이 있었다. 이대로만 간다면 우리農民1,000世帶만 農器具를 가지고 온다면 Argentina 全 農土를 開墾할수 있을 것이라고 長官은 부풀어 있었다는 것이다. 狀하다! 우리 農事군들이여 이런 快舉를 政府는, 國民들은 알고나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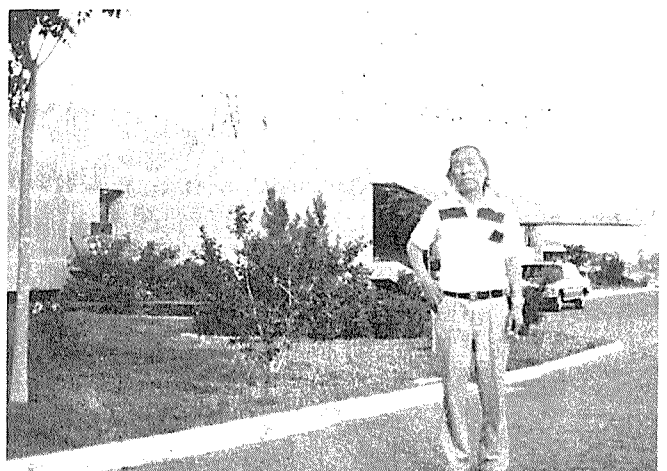
一行은 저녁食事を 하고 뽳뽳히 求景이며 Shopping이며 거리로 나섰다. 거리의 레코드店頭에 사람들이 모여



Burasilia 展望 台에서 三權廣場을 본다.



Burasilia 国会下院會議場



Burasilia 韓國大使館 韓昌鎭氏設計

서있기에 기웃거리더니 탱고音樂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처럼 그들은 탱고를 즐기고 사랑하고 있는것이다. Go, Go나 싸이키音樂은 이곳에선 脈도 못춘다. 하물며 Disco에 이르러서야! 나는 張, 黃兄과 아니 煽動해서 탱고 Show名門집을 찾았다. Elmersen, Michelangelo, 이 두 집이 여기서 가장 有名하다기에 Taxi를 잡아탔다. 먼저 Elmersen에 갔더니 손님이 한사람도 없다. 異常해서 물었더니 밤 1時에야 始作한다고 한다. 勿論 이곳에 通禁이 없지만 왜 이렇게 늦게 始作할까, 2時間을 기다릴수 없어서 不得已 Michelangelo에 갔다. 玄關에서 案内人이 飲食이야 Show냐고 묻기에 Show라고 했더니 2層으로 올라가라고한다. 入場料가 없다. 집모양은 아-치式인 赤煉瓦造이다. 舞台도 붉은벽돌-色이다. 觀覽席엔 손님이 大滿員이어서 비좁고 들어가서 舞台가까운 곳에서 세 사람은 자리를 잡았다. 麥酒두병과 오렌지쥬스를 시켰다. 몇명의 日本人이 앞자리에 있었다. 官公吏임이 틀림없다.

이윽고 主人이 舞台에 나와 긴 人事를 하고 Show가 始作했다. 移動式舞台가 미끄러져 나오고 그위에 6人組 탱고樂團이 演奏하면서 나온다. 피아노와 아코디언이 정정 울린다. 가슴이 띵띵할 程度이다. 사이사이에 바이올린이 가느다랗게 끼워진다. 이렇게 輕快하면서도 哀調인 音樂이 또있으랴. 우린 넋을 잃고 멍하니 陶醉했다. 한 곡이 끝나니 와-하고 拍手가 터진다. 우리도 아-하고 感激했다. 表現할수있는 말이 없다. 前年에 Madrid에서 후라밍고춤을 보고 눈물이 날뻔했던 그런 心情이다. 이윽고 두번째 곡이 始作했다. 舞台가 若干 옆으로 밀리고 한쌍의 男女가 탱고춤의 示範이다. 멋지다. 저것이 탱고춤이구나. 서울 카바레에서 추는춤은 아무것도 아니다. 原來 탱고춤을 master하면 다른춤은 출 맛이 안난다는 말의 뜻을 알것만같다. “저자식 아코디언이 깨어지지 않을까” “피아노를 치는것인줄 알았드니 디리문지르는군” “저 村놈 이런곳에서도 嚴肅한 表情이야, 저 態度를 좀봐 쪽바리는 할수없군” 우리들의 귓속對話이다. 몇가지곡이 繼續되고 춤도 繼續되고 漫話도 나오고 다른 舞踊도, 魔術, 無言劇 人形춤 또 탱고音樂 情熱의인 熱狂이다. 拍手, 喊聲, 이진 亂場판이다. 이사람들은 미치고 있다.

우리도 제精神이 아니다. 이러다가 끝났다. 아쉽다. Boy가 計算書를 가져왔다. 값이 무지하게 비싸다. 아-入場料가 이 飲料에 包含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렇다면 싼便이다. 우리는 너무도 아쉬워서 한번 더 보자고 자리를 뜨지 않았더니 나가라고 한다. “한번 더보겠다” “그러면 자리를 저리로 옮겨라” 좋다” 손님들은 다나가고 다음 차례 손님들이 들어온다. 또 飲料를 가져오고 Show는 反覆된다. 처음 人事부터 始作된다. 途中의 舞踊과 人形劇이 若干 다를뿐이다.

우린 두차례의 Show를 보고 밤거리에 나오니 별이 쏟아지듯 아름다웠고 바람은 싸늘했다. 거리를 좀 거닐면서 “라쿨라르시타”를 합창하면서 舗道를 Step을 밟으면서 걸었다. 나는 포켓속의 錄音테이프 2個를 만져보면서 歸國하면 協會의 모임에 이 音樂을 들려주어야지 마음 먹었다. 호텔에 돌아오는길에 신이나서 Bar에 들어서 気分을내다가 너무도 큰 바가지를 써서 화가나서 Hotel Front에게 화풀이를 했더니 “原來 Bar란 바가지를 씌우는곳이 아니요”하면서 泰然하다. “形便없는 子息들이군” 중얼대면서 房에 올라갔더니 “어디갔다 왔느냐”고 묻는다. 그래서 신나게 說明을 했더니 야단들이다. Argentina에와서 “탱고”을 못듣고 갈수가 있느냐고 나간다는 것이다” 아 未安하지만 오늘밤 끝났어요. 우린 두차례를 다보고 왔으니깐” “그럴수가 있느냐 왜 혼자서만 갔느냐” 非難의 總功擊이다. 그래서 Bar에서 바가지 쓴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봐라 사람들이 마음씨 잘 먹어야지 혼자서들만 재미보고 다니니까 바가지를 쓰지 셈통이다” 하……웃어냈다.

房에 돌아와서 沐浴을하고 오랫동안 서울 子息놈에게 便紙를 썼다.協會에도 썼다. 너무도 바쁜 驅步旅行이라 집에 便紙 쓸 사이도 없었다. 나는 原來 旅行中에 便紙를 쓰지않는 便이다. 家族들도 이젠 訓練이 되어서 無消息이면 아빠는 無事한 것으로 알고있다. 또 선물같은것을 사가지고 다니지 않는 버릇이어서 子息놈들도 나의 旅行에 別로 觀心을 가지지않는 버릇이었다. 그래서 親戚間에도 언제 어디에 다녀왔는지 모르는때가 많다. 하두 이런식으로 五六次旅行을 했더니 모두들 그런것으로 알고있어 마음이 平安하다. 말이났으니 말이지 나는 旅行엔 이젠 要領이 생겼다. 即 미리 旅行할곳과 時間予定을 正確히 짜고는 거의 어기지 않는다. 不足한 旅費도 全旅程과 時間을 勘案해서 分配해서 어떤곳에 予定한 旅費가 남으면 그곳에서 마구 써버리고 그래도 남으면 거지에게라도 다 주어버린다. 不足하면 굶어도 만곳에 予定한 金額은 絶對로 쓰지않는다. 때문에 大概의 境遇 金浦에 到着하면 無一分이된다. 미리 떠날때 韓貨 2千원은 꼭 가지고 떠났다가 歸國해서 金浦에서 집까지의 Tax料金으로 쓴다. 집에 到着하면은 完全히 나의 포켓에는 一錢도 없는것이다. 아주 徹底한 計算과 實踐을 해왔다.

11月 8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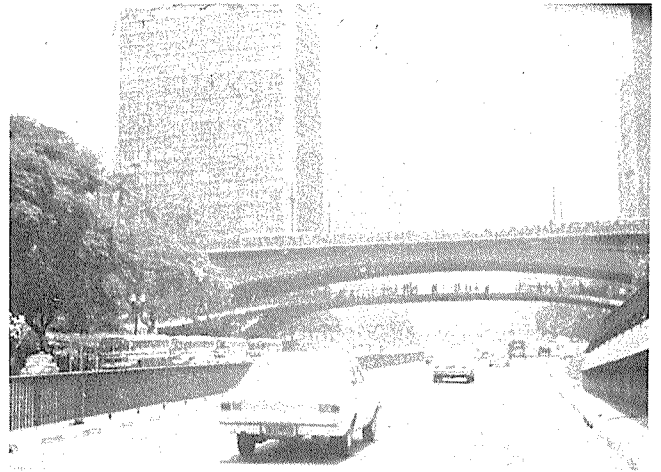
비는 아침에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짐을 整理하고 空港으로 떠났다. world cup蹴球에 優勝했다고 그들은 아직도 그 祝祭氣分이 가시지않은 모양이다. Show window엔 蹴球공에 各國選手들이 싸인한것이 陳列되어있는곳이 많이 눈에 뜨인다. 街路樹가 古木이 많아서 都市가 숲속에 있는것만같다. 그런데 그 街路樹의 꽃이 黑色에 가까운 색깔의 異常한 꽃이 되어있다. Brazil Air Line機는 雨

中滑走路를 離陸했다. São paulo를 向해서 午前 11時正刻 이었다. 747잠보機인데도 Sao Paulo까지 6時間이나 飛行한다. 南쪽으로 마젤란海峽이 보이고 広濶한 平野를 動搖없이 미끄러져가고만 있다. 끝없는 広野! 地球上의 食糧問題는 걱정할 必要는 当分間 없을것만같다. Mexico 서부터 Argentina Brazil의 広野를 開墾만하면말이다.

機内는 웅성거린다기보다 시끄럽다고 表現해야 맞을것 같다. 그것은 São Paulo로가는 飛行機이므로 Brazil人 이 많아서인지 말소리, 웃음소리가 요란하기 때문이다. 原來 Brazili人들은 樂天家들이다. 그것도 그럴것이 땅이 넓고 氣候가 좋고 아무리 가난해도 먹을것이 많고 값이싸니 악착같이 허둥대지 않는다. 조금만 일하면 먹고사는 데는 別 支障이 없으니 樂天家가 될수밖에 게다가 人間的인 俗性은 있으니 술과音樂과, 춤, 그리고 女子라는 公式이 나오게 마련이다. 貧富의 差異는 極甚해도 배가 고프지 않다는 点에서 東洋의 貧富의 差와는 性格이 다른 点이있다. 中南美 大陸을 經營해온 Spain과 Portugal 은 이 大陸의 面積의 約 半半을 나누어서 Brazil 以外の 모든 國家는 Spain이 占領했고 Brazil만은 Portugal이 占領했다. 때문에 中南美에서는 거의 Spain語를 使用하는데 오직 Brazil만은 Portugal語를 쓴다. 우리 一行은 난생 처음으로 Portugal語에 接해본것이다. Buenos Aires 空港을 離陸해서 6時間만인 午後 5時에 São paulo空港에 到着했다. San Fernando라는 比較的 작은 뒷골목의 호텔에 投宿하고 Front에서 전혀 通하지않는 英語로 손짓 발짓해서 한房에 三人式 二房을 얻어 比較的 싼값으로 定했다. 英語와 Spain語가 通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손짓과 表情과 感으로 할말과 할일은 다해냈다. 우리 이런것을 國際語라고 불렀고 이것으로도 通하지 않을때는 最後의 手段으로 完全히 우리 韓國語로 말한다. 이 韓國말이 잘 들어 먹을때가 많은것을 나는 여러번 經驗했다. 前年 泰國에서 民俗村으로 가는길에 Taxi運轉手가 拳闘이야기를 하노라고 Handle을 놓고서 두손으로 Boxing흥내를 낼때 옆에 앉아있던 俞景哲氏가 “아이親旧야, 危險하단말야” 하고 우리말을 엉겁결에 했더니 우리말을 전혀 모르는 泰國人運轉手가 “오-”하면서 Handle을 잡았다. “앗!! 이 子息 韓國말을 아는데”하니까 “응”했다. 이번 旅行에서 그런예가 여러번 있었고 특히 Peru에서는 一行들이 가끔 나와 Socoro嬢을 놀리느라고 弄談을 韓國語로 할라치면 S嬢이나 M嬢이 感으로 잡아서 다-알아차리고 불을 불히든지 눈총을 쏘아부치든지 했다. 旅行中 言語가 不通일때는 泰然하게 우리말을하면 저쪽에서 알아차리게 마련이니 걱정을 할 必要는 없는것이다.

一行은 沐浴을하고 Hotel lobby에 모여서 移民와 있는 親知들에게 連絡을 다 해놓고는 來日아침부터의 Schedule을 짜놓고 밤거리로 저녁食事を 하러나갔다. Brazil 飲食

에는 몇가지 名物이있다. 即 “혜주와다”와 “슈라스코”이다. “혜주와다”란 原來가 奴隸들에 먹인 飲食으로 우리 말로 한다면 “꿀꿀이죽”이 되겠다. 옛날 Portugal人들이 奴隸들에게 주기為해 만든것이나 보기보다는 맛이 있어 이나라의 大衆飲食이되고 名物이 된것이라고 한다. 即 돼지 꼬리나 内장을 醬에 넣어 끓인것이니 꿀꿀이 죽이가 장 알맞는 이름이 되겠다. “슈라스코”는 南美各國에 다 있는 軍고기덩어리를 깎아서 접시에 놓는것이나 나라마다 그 方法이나 양념이 다를뿐이다. 우리 Buenos Aires 에서 이미 Argentina式의 “슈라스코”를 먹고온 셈이다.



Sãopoulo 中心街



Sãopoulo 大學構内

그래서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헤주와다”를 찾았다. 到底히 말이 통하지 않아서 찾을길이 없다. 結局은 지쳐서 中国料理집을 찾았으나 生疎한거리라(市街가 컴컴한便이여서) 찾을길이 없다. 이러다간 저녁을 굶겠구나하던참에 天祐神助랄까 카작은 中国人이 지나간다. 나는 무턱대고 그를 잡고 中国語로 말을 걸었다. “우린 韓國에서온 建築家들이다. 저녁을 먹을곳이 없다. 가까이에 中国飲食은 없는가, 가리켜다오” 그는 快히 반가워하면서 따라오라고 한다. 그를 따라가면서, 나는 Brazil이나 Saopaulo에 처한 많은 知識을 얻었고 밤거리엔 날치기가 많으니 操心하라느니 거리의 女女人을 注意하라느니 親切히 가르쳐 주었고 紅花飯店이란 中国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 저녁을 푸짐하게 끝내고 호텔로 돌아오는中, 白人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半잠둥이를 쫓아가는것을 보았다. 날치기를 당한 것이다. 한참이나 있다가 巡警 두사람이 그 半잠둥이를 잡아가지고 白人을 찾고있었으나 그 白人은 제 나름대로 따라갔는지 없었다. 거리에는 菓子집이 많았다. 그런데 異常하게도 南美에서는 菓子を 어린아이들이나 女學生들보다도 男子어른들이 菓子を 많이들 사먹는것을 알았다. 우리들에게는 영 理解가 가지않았다. 어른들이 菓子を 사먹고 다니다니 우습기만했다. 가게의 샷아- 열이 든지 담밀 뒷골목길엔 밤의 女女人들이 우쿨거렸다. 누군가가 “우린 호텔을 잡으면 왜 꼭 이런 区域에다 잡게되지”

“아- 모두가 女難의 相이 있어서지 누가 이런곳인줄 알고 일부러 잡았나, 잡고보니 이런곳이 偶然히 많았지” “何如間 女難의相도 좋지만 体格들이 늘씬하긴하군” “남의 것이지만 物件들은 잘뽑았어” “탐나” “어디 勇氣를 내보시지” “아 그렇구말구 大韓男兒의 氣概를 떨쳐봐야지” “아서라 사람다쳐요” “말이 통해야말이지” “제기랄 보고도 못먹는떡인가” “아니야 주어도 못먹는떡이지” 하…… 우린 이런 허튼雜談을 하면서 호텔로 돌아왔다. 來日아침이면 七八年만에 만나는 移民은 親舊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變했을까 어떻게들 살고있을까 옛말에 一世移民은 苦生뿐이란 말이 있는데, 苦生들했는지 그러나 만날수 있더니 반갑기만 했다.

11月9日

어제밤에 거리에서 購入한 市街地圖며 觀光案内書を 읽어보고 Saopaulo市에 대해서 若干의 知識을 얻었다. 이 都市가 中南美에서 가장큰 都市라는것 外国에서 移民이 가장 많이있는곳, 商業의 中心地라는것, 日本人 移民이 가장 많은곳, Brazil에서 日本人을 特等, 自己들이 一等, 白人이 二等 나머지는 三等 國民이라고 부른다는것 들이다. 日本은 Brazil移民70年史를 가지고있다. 따라서 現在는 二世, 三世들인데 이들은 日本語를 전혀 모르고 日本도 모르고 完全히 Brazil人이 되어버렸으나 모습만은 日本人인데 政府에 長官이 三名이나있고 上下院에 20名以上の 国

會議員이 있다고하니 大端한 이야기고 特等國民이라고도 할만하다. 前年田中首相이 와서 移民70年祝祭를 행하는데 이나라의 傳統的인 카니발(謝肉祭)은 저리가라 程度의 大祝祭를 했다는것이다. 市内의 큰區域이 日本村으로 鳥居며 초롱, 日語 看板이며 料理집等 마치 日本의 中型都市를 옮겨온것같은 느낌이날 程度이다. 우리 移民들이 農業移民으로 갔다가 都市로 들어와서 파고든곳이 바로 日本村이란. 우린 国内에서 Brazil移民을 失敗했다느니, 그래서 Brazil政府는 우리를 싫어한다느니 말이 많으나 現地에 가보고 들으니 事情은 달랐다. 이날아침 大型車를 가지고 張兄의 이웃에 살던 移民간 全氏가 왔다. 우린 그 車로 市内를 보면서 日本村을 거쳐서 韓人村으로 갔다. 日本村의 大規模와 요란함에 비해 韓人村은 貧弱하기 形便없다. 醫學博士 누구나 高麗니, 서울무슨 商店等 우리 말 看板이 붙어있는 고개 비탈의 좁은골목에 아주머니, 아이들할머니, 서울번두리風景이다. 食堂에서 冷麵과 갈비탕으로 點心을 먹고 僑胞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먹서먹할까? 우리 一行을 못마땅하게 보는 눈치이고 警戒하는 눈치이다. 六感으로 “야 이것 안올곳에 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그들의 劣等意識도 아니고 對抗意識같이 보였다. 나는 全氏가 僑民會 總務라기에 그에게 親舊인 J中領, I大領, S中領, R大領, K中領 陸軍에서 予編한다음 移民은 사람들의 安否를 물었다. 特히 同鄉인 J中領의 住所를 물었더니 그분은 유태인村에 살고있어 食料品店을하고 僑民會에도 잘 나오지 않으나 대쪽같이 끈은사람이라면서 案内해 주겠다고 한다. 나는 一行과 헤어져서 저녁 6時에 호텔에서 만나기로 하고 全氏車로 유태인村으로 갔다. 八年만에 만나는 親友이라 가슴설레었다. 그의 食料品店 앞에서 내려서 全氏를 돌려보내고 그 가게로 달려들어가면서 J兄의 막내딸 이름을 불렀다. 店頭에 15才가량의 Brasil少年店員이 쳐다본다. 젊은女人이 “누구세요”한다. “이게 원옥이네집이지요?” “네 아가씨는 學校에서 돌아오지않았는데요. 누구세요” “나 서울서온 원옥이아빠 同鄉親旧요” “아-그러세요” “아가씨는 누구요?” 對答을하지 않고 웃고만있다.

그때 밖에서 붉은샤스의 健長한 青年이 들어오면서 “아-이게 어찌된 일어요. 종인이 아버지”하며 나를 부둥켜 안는다 “너누구야. 원재아니야” “네 원재예요” “아버지, 엄마, 원극, 원옥 다 어디있니” “네 따로있어요 곧 데려올께요”하면서 아까 그 아가씨는 한달前 結婚한 自己아내라고 紹介를 하고 車를 몰고 떠났다. 이윽고 全家族이 (갓난孫子까지 안고)왔다. J兄은 나를보자 말도 못하고 꼭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린다. 婦人은 돌아서서 울고있다.

나도 눈물이 핑했다. “이게 어찌된 일어요 죽기前에 못볼 줄 알았는데 이 먼곳에 崔兄이 어떻게왔오. 꿈이 아니겠

지” 우리는 그동안의 수많은 이야기와 親舊들의 安否消息을 이야기했다. 來日 午後 Sao Paulo를 떠나야하고 一行 6名이나 있고, Mexico會議에 왔던 길이니 곧 돌아가야 한다고 했더니 “무슨말이나 우리집에 몇週日 쉬었다 가라면서 안된다, 못간다고 한다. 事情을 이야기하고 꼭 떠나야한다고 했더니 婦人은 便紙를 쓰고 J兄은 가게에 있던 Coffee를 마구 꺼내서 몇개의 封套에 넣는다.

서울 親舊들에게 갖다주라는 것이다. 집에 가자고 해서 가보았더니 連立住宅式아파트이고 車가 두台南 있고 田 곳곳에 가게를 하나 더 가지고있고 막내가 São Paulo 大學 醫科에서 一等을해서 全費獎學生이되어 新聞에 난것을 보여주고 만며느리며 孫子들을 人事시켜주고 다른 親舊들에게 電話로 連絡을 해주고 저녁때 一行을 다 데리고 한턱 낸다고 호텔로 같이가는 것이다. 반갑기도하고 고맙기도 했다. 그러저럭하다보니 6時 가까이되어 大車로 次男을 데리고 J兄은 호텔에까지 따라왔다. 一行에게 人事시키고 모두가 그車로 나갔다. 市内에 第一 큰 “슈라스코” 名門집에 갔다. 원재군이 Portugal語가 能한 德分에 우린 豪華로운 晩饗를 待接받았다. J兄은 次男만 데리고 먼저와서 2年間 죽을 苦生을 다해서 자리를 잡고 長男, 婦人, 三男長女를 불러왔고 現地에서 次男을 結婚시켰고 長女와 막내가 大學을 다닌다고 苦生談을 해주었고,

僑民들의 狀況이며 Brazil 政府의 態度等詳細히 說明해주었다. 僑民會의 감투싸움이며 不美스런일도 많지만 모두가 努力과 勤勉으로 이겨나간다고 国内에서 알고 있는 것과 現地事情은 다르다고했다. 即 中南美에서는 北韓 大使館이 全部 追放 當했는데(密輸事件으로) 末端官吏中에 빨갱이가있어 우리僑胞을 못살게군다는點 日本人들弄奸이 政府와 國會에서 作用되어서 우리 僑胞을 나쁘게 報道하고 있다는點 等이고 事實은 現地에서는 日本人과 거의 같은것으로 取扱하고 있다는 것이다. J兄이 猶太人村에 혼자있고 있는것은 韓人村에는 無知한 사람들과 分裂과 派別이 많아서 攷보기 싫어서라고 했다. 理解가 갈만한 이야기이다. 一行들은 궁금한것을 J兄에게 많이 물었고 J兄은 詳細히 說明해주었다. 食事後 밤거리 路上에서 서글픈 離別을 했다. 그것은 明朝 6時에 우린 Brasilia로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J兄은 나의 어깨를 껴안고 “이젠 죽을때까지 만나기가 어렵겠군” “崔兄이 왔다 갔으니 며칠동안 故鄉生覺이 나서 어쩔담” 조용히 잘하는데 刺戟을 준셈이다. 亦是人間이란 나이먹으면 故鄉이 더욱 그리워지는 것인가보다. 嗚呼라 人生無常, 會者定離는 佛門의 哲理라든가?

11月10日

快晴이나 早朝에 허둥지둥 空港에 나가서 곧 Brasilia 行機에 塔乘했다. 機上에서본 Brazil은 廣大하기만하다.

密林과 荒廢한 廣野의 連續이다. 國土가 우리 南北韓을 合친것의 40倍나 크기라니 알만도하다. Sao paulo에서 東北으로 約70哩 地點이 新首都Brasilia이다. 北上함에 따라 아마존의 大河가 가까워지니 密林도 大端해진다. 이 密林의 地下엔 無數한 地下資源이 埋藏되어있다니 부럽기만한 나라이다. 가도가도 끝없는 廣野! 바다는 보이지도 않고 地平線만이 아득히 보인다. 地球는 둥글다는 實感이 난다. 空港은 工事中이라 어수선한데 離着陸하는 飛行機가 아주 적어서 시골空港같은 印象이다. 高層이 없는 이 都市는 地域이 너무도 廣濶해서 平面的이란 느낌이 든다. 호텔까지 相當한 距離인데도 途中이 아주 閑散해서 시골에 온 氣分이다. 이런 瞬間부터 나는 異常한 생각이 나기 始作했다. 即 現代都市計劃과 現代建築에 對한 懷疑가 머리속에서 일어나기 始作했다. 왜 이렇게 冷談한 零團氣인가 우리가 은근히 바라는 現代都市가 이려하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더라는 생각이 났다. 이런일은 나쁜만 아니고 一行全員이 다스킬 일이다.

호텔에 들어와서도 어디인가 서먹서먹하고 親近感을 느낄수가 없다. 다시말해서 너무도 計算化, 機械化된 都市인것만 같다. 조금前에 떠난 南美第一의 都市인 São Paulo와는 全혀 性格이 다르다.

1822年 Brazil이 Portugal에서 獨立前부터 首都建設의 提案은 있었고 1832年 Jose Bonifacio大統領이 具體的으로 舉論했고 1836年 Juscelino Kubitschek大統領이 位置를 Cornel大學研究팀에 의뢰해서 選定했다. 都市計劃은 “루치오 코스타”가 官에 當選되어 計劃했고 “오스카 니마이아”는 記念建物을 担当하게 되었다. “루치오 코스타”가 1957년에 Master Plan을 完了했고 1960年 4月부터 土木工事が 着工되었다. 海拔1,100m의 赤土小丘陵地帶에 37,500에이커의 面積에 50萬名 收容의 首都와 衛星都市로서 附近에 地域農業計劃과 牧畜計劃을해서 約300萬을 收容키로 했으나 “코스타”는 社會主義者로서 이 都市를 完全히 社會主義 未來都市로 計劃했다고 한다. 例를 들면 50萬名의 食事問題을 現場에서 解決해서 所謂 中共의 人民公社에서의 食事工場式으로 했으나 人統領과 國民들의 反對로 座折되고 余他の 部門은 計劃대로 되었다는데 아직도 工事中이라 그輪廓이 뚜렷하지 못하고 무슨 工事現場같은 느낌이 난다. 都市全體가 패턴이 三角形의 交叉된 軸으로 되고 記念的 建物이 中心部에 있는 巴 로크式 都市計劃 理論의 導込에다 都市機能을 地域別로 分離시키고있다. 即 行政地域, 商業地域, 大使館地域, 호텔地域, 學校地域 等은 交通路로 連結시켰으므로 道路區長이 길어지고 徒步로는 不可能하니 自動車 以外에 道路上에 움직이는것이 없다. 即 사람이 없는 道路가 되었고 이 道路의 動線은 갖은 재주로 잘 處理시켜놓고 있으나 우리가 바라는 都市는 아니고 空想科學映画에서보는 未

來 都市의 느낌이 지 現實의 都市라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 그 옛날 東洋의 老子는 人間이 서로 사귀는 곳이 都市라 했고, Greece의 아르키메데스는 都市란 人間이 살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 즐기기 위한 곳이라고 했는데 果然이 都市에서는 즐기거나 사귄 수가 없고 機械的으로 生活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勿論 道路에 人道같은 곳이 없다. 建物は 그 하나 하나는 아주 洗練된 Design의 멋진 建物인데도 그런 것들이 群을 이루니 調和가 안되고 孤立된 느낌이고 특히 大使館地域에서는 各國의 大使館이 마치 무슨 模型展覽示場같은 느낌이고 博覽會 같은데서 各國館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다.

三權廣場이나, 展望塔이나 大統領官邸 등이 훌륭한 建物인데도 너무도 記念性과 展示性이 濃厚해서 싫증이 난다. 勿論 未來를 指向한다는 것은 나쁜 哲學은 아니로되 人間味가 없는 機械나 商品같은 차거운 印象인데야 어찌 하랴, 期待에 부풀어 無理해서 이곳까지 와서 失望이크다. 나는 밤중에 Lima의 Socorro嬢에게 이런 便紙를 썼다. 『Socorro! 우린 建築을 工夫했고 또 建築을 天職으로 알고 일하고 있으나 나는 이곳 Brasilia를 보고는 現代의 都市計劃과 現代建築에 懷疑를 느끼기 始作했오. 當身도 꼭 이곳을 와보시오. 우린 이런 都市와 建築을 해서는 안 되겠오. 萬一 이런 建築을 해야한다면 나는 來日부터라도 建築을 버리고 다른 職業을 擇하겠오. 이곳 高名하신 大家들의 建築을 보고서 Lima의 뒷골목길에 當身이 하고 있는 6층 office建물이 얼마나 人間味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오. 人間은 人間에게 親한 建물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오. Brasilia는 우리 人間들의 都市가 아니고 무슨 宇宙人들이나 살 곳인 것만 같소.』라고 썼다. 建築雜誌에서 본 每個의 建物에 感嘆을 했던 내가 Brasilia에서 그런 建物들의 群과, 超現代的인 都市計劃을 보고 恒時建築이란 未來를 予測한 試圖의 進行詞라고 한 내가 바로 그런 곳에서 失望을 한 것은 웬일일까? 到底히 알 수가 없다. 아마도 그 未來가 너무도 먼 未來인가보다라고 自慰해야만 할 것인가. 그래도 幼稚園에서 (托兒所)制服을 입은 꼬마 아기들을 보고 그 어린 것들이 保母와 재재거리는 모습을 보니 若干은 生氣가 났다. 요 것들이 이런 都市에서 成長해서 이 都市에 適應해서 이 都市는 人間에게 가장 좋은 都市이다라고 할런지는 몰라도 불쌍한 생각만 들었다. 何如間 이번 旅行中 큰 期待를 하고 갔다가 失望한 곳이 바로 Brasilia이고 작은 期待로 갔다가 큰 感動을 한 곳이 Peru Machupchu라고 할 수 있겠

다. 이 都市에서 若干의 興味를 느낀 것은 아파트郡이 모두가 “골부제”의 마르세이유의 “유니페 다비따시옹” Style의 피로티를 導入했다는 점이나 이것은 오스카나마이아가 C.I.M.의 近代建築의 五大原則을 実行한데 不過한 것이고 屋上庭園도 가끔 보였고 人工湖水나 못 등을 即 물

을 建物과 많이 結符시킨 点이라 하겠고 그들이 말하는데로 “Brasilia는 밤에 보라” 했으나 밤에는 요란한 五色의 電燈으로 못이며 建物이며 彫刻들을 비쳐주고 있어 都市라기보다는 祝祭場같은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靜莫한 祝祭라 할가 삭막한 억지의 展示效果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까운 表現일 것이다.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더라”는 占談이 생각났다.

11月11日(土)

Brasilia空港에서 11時30分出發 Rio Janeiro로 떠났다. 飛行機는 東南으로 다시 南下한다. 機内에서 눈을 감고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나는 어려서부터 旅行을 즐겼고 또 많이도 旅行을 했다. 그런데 남달리 異常한 장난기가 있어 旅行中 有名한 곳이나 感動된 곳에서는 반드시 나의 肉體의 排必物을 그곳에 남기고 오는 버릇이 있었다. 世界到處의 名所에 나의 大小便이나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남기고 다녔는데 이곳 Brasilia에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別로 興味나 感動을 못느꼈다는 證據이기도 한 것이다. 中國의 萬里長成위에, 上海黃浦江上에, 承德的 라마寺院 뒷뜰에, 스위스레만 湖水에, 터키의 이스탄불海峽에, 희랍아크로포리스 언덕, 런던타워담벽, 뉴욕하드슨江에, 五十餘個國古蹟이나 名所에 반드시 小便이나 大便 或은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남기고 온 장난기서린 버릇이 있었는데 오직 이곳 Brasilia에서만은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이 버릇은 남이 보면 나쁜 버릇이라고 하겠지만 나로서는 深刻한 行動인 것이다. 即 내가 이 世上에 태어나서 地球上에 다녀온 곳에는 自身의 證據物을 直接 나의 肉體에서 排必物로 한다는 (돈이나 物件 아닌) 다시 말해서 “陽嵐崔先生 이곳에 왔다갔다”라는 表識을 하는 셈이고 旅行에서 돌아와서 追憶을 더듬을 때도 야 그곳엔 나의 分身이 아직도 남아있겠지 하면 그렇게 재미있고 우스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버릇은 나는 親舊들에게 勸奨하고 있다. Rio는 世界三大美港의 하나라고 小學校때 배웠다. 果然 아름다운 都市이다. Rio市民들이 말하기를 造物主가 宇宙萬物은 7日間에 다 創造하시고 人間들이 즐기고 놀수있는 아름다운 都市를 하나 만들어 주겠다고 八日째는 이 Rio를 만드는데 消費했다고 할만치 Rio는 人間이 만든 都市가 아니고 神이 創造한 都市이기 때문에 地球上의 어느 都市보다도 아름답고 格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가장 높은 山頂에 70m나 되는 그리스도像을 세우고 그像이 Rio를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다. Corcovado峰은 “그리스도가 処刑당한 골고다 언덕에서 땀다고 한다. Rio를 表現할만한 形容詞를 나는 못가지고 있다. 굳이 말한다면 Rio는 男性을 爲한 都市(이말의 逆도 眞이다), 즐기는 消費都市, 삼바춤과 삼바音樂, 술, 寶石, 女子, Sex, 運動(蹴球海水浴等) 광란의 都市, 褐色의 皮膚, 豐滿한 肉體의 亂舞, 氣候며 空

氣味濃度가 快適한 四季, 果然 神이 만든 都市답다. 内國人的 旅行者와 外國人的 觀光客, 人種의 差異가 없는 原色地帶, 人間本能이 滿發하는 곳, 갖은 飲食이 豊富하고 싼 곳, 裸體의 都市等 또 무슨 形容詞가 必要하랴. 저 有名한 Cocapacana海邊의 肉精의 混雜, 快速의 쌈바리듬, 惶惚한 夜景, 뒷골목의 感傷等 우린 호텔에서부터 半裸體로 海邊으로 나갔다. open Cafe 에 앉아서 Coffee나 주스를 마시고 있으려면 全裸에 가까운 女人들이 치근댄다. 링크한번이면 交涉은 瞬間的으로 成立되는 곳이다. 客苦를 풀기엔 좋은 都市이다. 밤에 Samba school에 가보고는 놀랐다. 이것이 學校인가 亂場판인가 疑心이 갈 程度이다. 그 늘선한 褐色皮膚의 半裸亂舞이다. 마치 原始時代의 宗教儀式이란 느낌이나나. 밤중부터 비가 내리기 始作했다. 가는 보슬비다. 우린 일부러 보슬비를 맞으면서 쌈바에 醉해서 호텔로 돌아왔다. 비는 旅行者들을 感傷으로 물고간다. 南美旅行도 終章으로 들었는데 來日 하루더 Rio에서 머물고는 유럽과 北美, 韓國으로 뿔뿔히 헤어지게 되어있다.

서울을 떠난지 1個月이 되려고하고 있다. 서울은 初冬. 일텐데 여기는 Aircon을 Full로 稼動시켜도 덥다. 구름 사이에 달이 들락거린다. 來日은 海水浴이나 실컷하고 가자고 마음먹었다.

11月13日

快晴의 氣分 좋은 아침이다. 9時에 Panam航空社에 가서 票를 再確認하고 全員 海邊에 集合했다. 우리도 人波속에 끼여 水泳을 즐겼다. 지치면 Open cafe에서 마시고 먹고 링크하고 같이 水泳하고 作亂치고 마시고 먹고의 連續이다. 어제 알아두었던 中國집에는 오늘 저녁 6時에 晚餐은 할테니 韓國김치를 만들어달라고 附託을 해놓았다. 그집엔 어제저녁 食事を 하는데 主人이 韓國배추김치를 주질래 놀라서 물었더니 自己는 韓國을 모르는데 從業員中 한者가 韓國에 오래있다 와서 우릴 韓國人임은 알고 自己가 먹으려고 만들어 놓았던것을 주라고 했다는 것이다. 우린 오랫동안의 김치라 다 먹어버리고 來日 저녁에 올때 더 만들어 놓으라고 附託한것이다. 온從日 水泳으로 皮膚는 아프고 被勞해서 中國집에 갔더니 約束대로 김치를 만들어 놓았으나 하루만이어서 익지않아서 걸질이 같았으나 그래도 맛있어 좋아라 하고 다 먹어버렸다. 값은 비싸게 냈지만 Rio에는 名物도 많다. 13km나 되는 海中橋 가장 큰 蹴球場이며 (펠레가 活躍한 蹴球場이다) 鬪鷄. 쌈바. 謝肉祭 Corcovado, 岩山頂에 오르는 케불카 Cocapacana海水浴場·海産物食堂·寶石·Oton Palace를 비롯한 有名한 호텔들, 옷트場, Taxi의 바가지料金.

世界各國에서 遠征은 女人群, 白人들이 맥을 못추는 都市, 英語가 通하지않는 都市等 想像할수 없는 일들이 많은곳

이다. 例를들면 어제밤 night tour에 같이갔던 아일랜드 親旧는 Samba School에서 옆에있던 Brazil中年女人과 親해졌고 그 女人은 Show途中에서 어디서든지 있듯이 幕間에 손님을 紹介하고 그나라 노래를 불러주는 順序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Korea! Korea! 했는데 도 司會者가 韓國을 잘모르니까 못들은체 해버리자. 舞臺에 달려나가서 저기 Korea의 建築家六名이나와 있는데 왜 紹介를 안하느냐고 따지고 덤빈 猛烈女性인데 우리 一行에게도 興味를 가지고 있었지만 反應이없자 그 아일랜드 親旧와 단짝이 되어서 호텔까지 왔었다. 오늘아침 그 親旧에게 어제밤 재미보았느냐? 물었더니 “와-말도 말아 멋있는 女子야” “돈을 주어도 안받는단말야” “São pulo에서 놀러왔다는데말야. Brazil女子들은 果然 세단말야” 그 親旧는 신이나서 이야길했다. Brazil은 樂天主義者들이 많고 먹을것이 豊富하니 게으르고 人生을 즐기는 層이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free Sex가 성행하니 우리들의 道德觀이나 倫理度로서는 理解할수 없는곳이다. 우리 一行도 木石은 아니다. 褐色의 皮膚를 滿喫했다고 않을수도 없을것이다.

11月14日

惶惚하기만 했던 Rio에서의 日程도 大過없이(?) 끝내고 空港에 集合한 一行은 四名이 北美쪽으로 먼저 떠났다. 十餘日間 6名이 南美를 다돌고 여기서 分散하는 것이다. 離別이란 늘 서글프고 섭섭한 것이다. 張兄과 나는 그들을 손흔들어 바라보내고 텅빈것같은 空港HALL에 無言으로 있다가 다음LA向便을 기다렸다. 腦中에 走馬燈같이 지나가는 南美各國의 風景들이 획획 지나간다. 이 울음이 터질것같은 心情은 旅行해본 사람이면 거의 經驗했을것이다. 이런때 親한 親旧나 情다운 女人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왁하고 눈물이 쏟아질 心境인 것이다.

왕왕대는 speaker소리에 제精神으로 돌아와서 LA飛行機에 塔乘했다. 캄캄한 밤하늘을 萬m나 되는 空上으로 로마존 江流域을 지나 Venezuela의 카라카스空港에 着陸했을때 캄캄한 이른 새벽이었다. 밖은 전혀 보이지않는다. B.A社가 提供하는 Coffee를 들면서 空港窓밖을 내다보면서 헨리 벨라폰테의 Venezuela라는 노래가 생각나서 口속으로 중얼대면서 徐徐히 밝아오는 이나라의 山河를 쳐다만 보았다. B.A機는 다시 離陸해서 Panama運河近処의 Panama空港에 내렸다. 時間만 있으면 Panama運河를 叩求景했어야만 했는데 國際航空法에 外機가 運河上空을 通過할때는 반드시 이 空港에 着陸했다가야 한다는 規定때문에 着陸한것이지 原因은 없었다. 따라서 Mexico로 갈때도 이 空港에 機輪이 땅에 닿았다가 그냥 離陸했다는 것은 前般紀行文에 쓴바와같이 만일이 規定을 어기면 發砲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Panama運河의 安全을 期하기爲한 措処라고 한다.

Rio를 出發해서 滿19時間만에 LA. Localtime 年後2時

에 LA에 到着했다. 漢大卒業生이면서 張兄과 同期인 白兄이 車를 가지고 나와 있었다. LA는 갈때도 들렀고 올때도 들렸다. 그것은 이곳에서 KAL機를 타고 서울로 直行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호텔을 定하고 姜大雄, 黃漢柱 閔章植氏들에게 電話를 했더니 모두가 와- 하고 물려왔다. 이젠 서울武橋洞에와 있는 氣分이다. 南美의 이야기 꽃이피고 LA의 다른 親舊들의 消息이며 連絡이며 부산하다. 李守永兄은 “LA에와서 호텔에서 잔담말요. ,, 갑시다” 하더니 나의 짐을 들고나가 車에 싣고는 다짜고짜로 自己집으로 간다. 婦人이며 長男夫婦, 孫子, 次男들이 반긴다. 婦人에게 連絡해놓고 왔는지 갈비며 김치, 고추장 짠 韓國飲食으로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後 三一堂에서 울서온 어떤 女人의 자수展에 가보았다. 2~30名の 韓國人과 4~5名の 美國人이 있을뿐이다. 그래도 그들은 서울에 돌아와서 美國에서 展覽會를 가졌다. 고향것이고 大盛況이었다고 할것이다. 美國이래야 LA의 韓國村에서 그것도 거의 韓國人들끼리 2~30名 모여서 한 展覽會를 맡았다. 그래도 外國에서 展覽會를 가졌다는 큰 經歷이 된다니 속으로 우습기만 했다.

11月15日

아침 호텔에서 張兄으로부터 連絡이왔다. 白兄의 車로 張兄과 디즈니랜드에가서 하루를 즐겁게 童心으로 돌아가 장난치면서 旅行의 疲勞를 풀었다. LA의 韓國村(olympic town)은 누구나가 다- 알고있는 일이지만 迎賓館

이 新築되어 곧 開館한다고한다. 저녁은 國一館에서 韓食으로 배우고 20명이 넘는 漢大同窓會員들을 만났다.

이어서 그들도 하도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니 事實은 귀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9月16日

午前中에 李兄과 Main Street에 나가 映画도보고 노동거리다가 又來屋에가서 많은 親舊들을 만났고 李兄집에와서 짐을 꺼내고 姜大雄과 空港으로 나와서 밤10時發 KAL機로 一路 서울로 直行했다. 途中에 하와이에 들렀다가 곧 떠났다. 지루한 飛行을해서 18日(日字變更線은 通過했음으로) 午前9시 金浦에 到着하니 初겨울의 찬 空氣가 肺속에 스며든다. 아내와 子息놈이 나와 있었다. 李兄이 LA서 서울에 電話를 해 주었기 때문에 到着時間을 알고 있었다고한다. 張兄은 3~4日 더 LA에 있다가 靑島의 동생을 만나고 온다기에 LA에서 헤어졌다. 旅行때마다 느끼는것이지만 金浦에 到着하면 긴 한숨이 나오고 아- 돌아왔구나. 無事히 運 좋게 事故없이 돌아왔구나 하는 安猪感이랄가 動物의인 歸巢感이랄가. 그래도 내 나라 내江山 내집이 世界에서 第一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 오늘부터 또 數 많은 規定과 눈에 보이지않는 拘束에 얽매어야하나 바가지는 굵어도 내마누라가 좋고 子息들이 貴여있다. 고삐 풀어놓은 망아지마냥 떠돌아다니 다가도 많은 追憶을 안고 돌아오니 흐뭇하기만하다. 人生의 幸福이란 條件속에 아름다운 追憶이 많아야 한다는 條目이었다. 나는 幸福한 사나이일는지 모른다. 돈은 없어도 말이다. — —

建築家協會定期總會

지난 2월 24일 오후 2시 市内롯데 빌딩에서 정기 총회를 갖고 일부 임원을 개선했다.

회 장: 한 정 섭

부회장: 이 해 성 · 이 승 우

2년理事: 공 일 곤

김 봉 훈

서 상 우

오 기 수

원 정 수

유 경 철

윤 승 준

장 석 응

주 남 철

감사: 김 지 배

1년理事: 강 병 기

강 창 근

구 윤 회

권 태 문

김 정 식

안 장 원

전 동 훈

조 창 결

황 일 인

감사: 송 기 덕